



한국타이어가 제안하는 겨울철 안전운행

겨울철은 차량 관리에 각별히 힘써야 할 시기다. 배터리 점검, 부동액, 냉각수, 엔진오일 확인, 겨울용 타이어 장착 등 차량 월동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용 타이어는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필수품이다. 사계절용 타이어는 추운 날씨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충분한 접지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면 겨울용 타이어는 특수 고무 컴파운드 배합을 적용해 영상 7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경화되지 않는다.

겨울철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의 마찰력은 온도와 노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고무의 특성상 기온이 높아지면 타이어가 부드러워져 접지력이 높아지지만 낮은 기온에서는 고무가 경화되기 때문에 타이어 본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타이어가 테스트한 결과, 눈길에서 시속 40km로 달리다 제동

하면 겨울용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18.49m, 사계절용은 37.84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차이가 두 배에 달한다. 빙판길 테스트(시속 20km에서 제동)에서도 겨울용 타이어는 사계절 타이어 대비 약 14% 짧은 제동 거리를 기록했다.

겨울용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 성분과 트레드(Tread: 노면과 닿는 타이어 표면) 디자인 및 구조는 일반 타이어와 다르다. 겨울용 타이어에는 빙판길, 눈길에서 노면과 마찰할 때 고무의 반발력을 낮추고, 저온에서도 딱딱하게 굳거나 얼지 않는 유연성이 좋은 고무를 사용한다. 또 트레드 표면에 삽입된 수많은 커프(트레드 표면에 새겨진 미세한 홈)는 뛰어난 마찰 효과를 발휘한다. 타이어 전면에 있는 넓은 4줄의

직선 그루브(타이어 홈)는 배수 성능을 높여준다. 눈이나 빙판이 녹아 도로 위에 생기는 수막현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앞바퀴 혹은 뒷바퀴 두 개만 겨울용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하면 앞바퀴와 뒷바퀴의 접지력에 차이가 생겨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겨울용 타이어는 4바퀴 모두를 교체하는 게 안전하다. 눈길, 빙판길은 일반 노면보다 4~8배나 더 미끄러워 급가속과 급제동은 피해야 한다. 언덕길에서는 미리 저속으로 기어를 변경하는 게 좋고,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낮춰 주행하는 것은 금물이다. 겨울철에는 온도 차가 심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마모가 심해지므로 타이어 공기압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 ▼



1 티스태이션 타이어 안전점검 2 티스태이션 휠 얼라이먼트 교정 장면